# 나주시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재추진

운영 지원 예산 이견 사업 중단 영산포 병원 폐원 의료공백 6년 시민 안전 최우선 대안 마련 착수

나주시가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 진해온 A의료재단과의 협력을 공식 종료하고 새 로운 방안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나주시보건소에서 영산 포 권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협력 종료 배경, 향후 대응 계획을 주민들에게 투명하 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2019년 영산포 제일병원 폐쇄 이후 지속된 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2년 A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의료조례 개정, 전남외국인진료센터 설치 준비·협의체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 6월 양측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협의를 본격 진행했으나 이후 A재단 측과 응급실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10월 실시협약 재협의 과정에서도 양측이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해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중 단됐다. 나주시는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재정 지



나주시가 지난 달 28일 나주시보건소에서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종료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주시는 119 구급대·인근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365일 남부권 특화 사설 구급차 운영,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으로 응급 공백 최소화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결정은 포기가 아니라 재추진을 위한 새 출발"이라며 "남부권 응 급의료체계 구축 목표는 유지하되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주민설명회 성황

장흥군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 유휴부지 활용 한 태양광 설치 설명회를 갖고 시업 준비에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구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에너지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한전KDN(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부지에 설치하여 주민참여 비율, 수익 배분 구조, 환경 영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 유휴부 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주민설명회와 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 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구축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 광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군민이 직 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공 공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에너지자립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공공야영장 전경.

〈장성군 제공〉

### 올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 캠핑 어때요

장성 상무평화공원 야영장 인기

장성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공공야영장이 캠퍼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2월에 접어들었음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수양저수지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려는 인파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문을 연 상무평화공원 공공야영장 (삼계면 영장로 1738-16)은 5인용 카라반 11 대, 텐트 데크 11곳, 세척실, 화장실, 관리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료는 10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며, 인터 넷으로 예약을 받는다. 포털 사이트에 '상무평화 공원 캠핑장'을 검색하면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상무평화공원 공공야영장의 장점은 '환경'이다. 수양저수지와 가까워 탁 트인 수변 풍광을한껏 만끽할 수 있다. 저수지 주변으로 데크길과산책로가 오밀조밀하게 조성돼 걷기에도 좋다.

밤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카라반과 텐트 데 크 주위에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저녁이면 낭만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편의성도 뛰어나 다. 도보 5분 거리에 중심상가가 있어 필요한 물 품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올 연말에는 가족, 친지와 함께 수양저수지 캠핑을 즐겨볼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사업 호응

13회 엽산·철분제 등 지급 건강관리

담양군이 지역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산전검진비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이며, 다문 화가정도 포함된다.

보건소는 임신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 튼살 크림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출산 안내 책자와 검진 쿠폰을 함께 지원한다.

산전검진비는 임신 기간 동안 13회 지원되며, 광주광역시 4개 협약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를

지근하다

담양군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는 1:1 모유 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 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 제 지원 등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의료서비스를 통 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라고 말 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함평군 어르신 200여명 대상 무료 눈 검진

함평군이 어르신 무료 눈 검진을 통해 고령층 건 강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함평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 눈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린 눈 검진은 고 령화로 증가하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 기에 치료를 연계해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마 련된 것으로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진 행됐다

검진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함평지사 직원 1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접수 안내와 이동 지원 등을 도왔으며, 돋보기와 기념품을 후원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

검진에서는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주요 안질환 여부를 확인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안약·인공눈물·백내장 지연제 등을 제공했다.

또 이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는 보건소와 연계해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1·2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백내장·망막질환·녹내 장 수술비를 지원한다. 재단은 2018년부터 58명 의 의료취약계층에게 안과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화순군, 내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확정

#### 맞춤형 복지 실현 47개 세부사업

화순군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내년도 시 행계획을 확정, 추진에 나선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길잡이 화순'을 목표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특히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인 ·장애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확대, 군민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민·관 협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지향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이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라며 "행정은 지원자 역할을 하고 군 민은 참여자·실천자로서 함께 힘을 모은다며 군민 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